

기사입력 2015/07/09 17:41

인쇄하기

"잘못된 한국 정보 함께 고쳐요"



내주 뉴저지주 티넥에서 열리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제33차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관계자들이 지난달 한국의 사무실에서 최미영 NAKS 총회장(가운데)과 포즈를 취했다.[NAKS 제공]

한국을 알리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단장 박기태)의 '신헤이그특사단'이 다음 주 뉴욕 일원을 방문한다.

신헤이그특사단은 박기태 단장과 반크 연구원들로 이뤄진 한국 홍보사절단이다. 오는 16일부터 뉴저지주 티넥에서 열리는 제 33차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이들은 첫날 역사 특강과 18일 오전 전체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지난 2009년 플로리다에서 열린 NAKS 학술대회에서도 강연한 바 있는 박 단장은 반크가 그동안 진행해 온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바로잡은 활동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재미 한인 학생들이 한국에 관해 잘못 알려진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떻게 함께 시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 또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독도와 동해가 제대로 표기된 영문 세계지도와 한국지도 한국에 관한 다양한 홍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미영 NAKS 총회장은 "최근 한국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배경이나 분포가 예전과 달라졌고 재미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과 역사문화 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반크가 그동안 해 온 활동을 배우고 미주 한국학교에도 적용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초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뉴욕에서의 활동에 앞서 10일 워싱턴DC에 도착하는 반크는 워싱턴 한국교육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메릴랜드주 몽고 메리카운티의 공립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강연 등을 진행한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반크는?=1999년 한 청년의 대학교 수업과제로 시작된 한국과 세계의 청년들이 이용하는 펜팔 웹사이트를 통해 시작됐다. 유학·봉사·어학연수 등을 계기로 세계로 나가는 한국 청년들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한국을 바르게 알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바르게 알려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한국홍보대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ttp://www.koreadaily.com>

POWERED BY **JO!NS** AMERICA